



노화와 산업보건



이 수 일

부산대의대
예방의학 및 산업의학교실 교수

노화

는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망으로 종료되는 시간적인 경과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누구든지 노동력이 있는 사람(15~65세)은 노화되어 가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노령 근로자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해당 작업과 관련한 능력의 주요한 변화가 생기는 기간을 일컫는다. 육체적인 기능적 능력은 30세 이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작업이 요구하는 육체적 요구도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45~50세에는 결정적으로 기능적 능력이 감소된다. 반면에 근로자 스스로 느끼는 작업 능력은 50세 이전에 최고에 이르며 그 뒤 5년 뒤에는 15~20%가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든 위치에 대해서까지 일할 능력이 없어짐을 보고하고 있어 45~50세의 연령은 “노령 근로자”의 기본적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다. 근로자의 노화를 이렇듯 이른 나이로 정의한 이유는 산업보건의 관점에서 보면 예방적 대처를 하기 위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조기 대처를 위한 노령 근로자의 개념이 55세나 그 이상의 근로자들이 근로 전선에서 방출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노동력이 노화되어 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인구학적인 두 가지 중요한 것은 베이비붐과 1980년대에 시작된 낮은 출산율이다. 유럽연합의 조사에 의하면 1985년에 50~64세와 15~24세 연령대 모두가 노동력의 25%를 차지하였고, 2005년까지 가장 나이든 군이 27%를 차지할 것인 반면에 가장 젊은 군은 단지 18%만 차지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2025년에 전체인구 중 55세를 넘는 사람의 비율이 유럽에서는 32%, 북미에서는 30%, 아시아에서는 21% 그리고 남미에서는

17%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에 총인구 성장률은 감소하였는데 비해 노령화 지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65세 이상 인구를 0~14세 인구로 나눈 노령화 지수는 1980년에 11.2이던 것이 2001년에는 36.3%로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인구 중 55세를 넘는 사람의 비율은 2000년의 15.5%에서 2001년에는 19.9%로 증가하여 인구의 노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핀란드 산업보건연구소는 노화에 의한 노동능력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변화하는데, 변화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노화가 가지는 기능적 변화이고, 다른 중요한 변화는 노령 근로자는 반드시 작업 성격의 변화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날의 작업의 변화는 노동 조직, 작업 방법과 도구 및 작업 부하가 인적 자원이 적응하는 것 보다 더 빠르게 변화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노화에 의한 노동능력은 노동능력의 절대적 감소도 문제가 되지만 이 보다는 변화하는 노동환경과 이에 대한 적응이라는 관점이 더 적합할 수 있고, 고령의 근로자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능력이 없다는 식의 비난은 다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사회의 노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나이든 근로자가 작업장을 떠남으로서 생기는 노동력의 부족현상이 급격하면 할수록 노령 근로자에 대한 태도는 변화할 것이고 작업의 변화에 대한 근로자의 적응의 문제가 실질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의 연구들은 1) 적응이 필요한 주요한 문제들을 확인하고 2) 노령 근로자들에게 작업이 성공적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의 결과 노령 근로자의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정이 있음이 밝혀졌는데 하나는 노동능력을 증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능력(employability)을 높이는 것이다. 한 추적조사 연구에 의하면 연령의 증가가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간단한 대책

이 노동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즉, 고령자 관리에 대한 관리자의 훈련, 나이든 근로자에 대한 인간공학적 기법의 적용, 작업장 운동 프로그램,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계획적 훈련 등이다.

우리사회도 노령화 사회에 들어서고 있어, 사업장 근로자의 연령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복지와 노동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산업의학에 있어서는 노화되기 시작하는 근로자의 기능의 유지 증진, 노화된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 보존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산업보건학적 배려가 우리들 산업의학 전문가, 근로자, 기업, 정부 모두의 앞에 다가오고 있다. 노령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산업보건학적 접근법을 바꿀(paradigm shift) 필요가 있다. **김영**

